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 하는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남영 | 세종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영·호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투표현상이 퇴조하고 있는가’라는 경험적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기획되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가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제시하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 때문에 연구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으나 경로분석 결과는 지역투표현상의 퇴조를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해 준다.

지역균열을 연령이나 이념균열로 대체해 나가는 증후가 보인다. 그리고 후보자 선택을 위해 국가경제평가를 고려하는 소위 경제투표 현상도 발견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지역투표현상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역투표현상의 퇴조 문제는 향후 종단적 연구에 의해 다시 엄밀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선택행위, 대통령선거, 정당지지, 지역효과, 이념, 경제투표, 후보선택

\* 이 연구는 필자의 연구년(2013. 03-2014. 02) 기간 동안 기획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 심사해 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연구년 기간을 갖게 해 준 세종대학교와 이 논문을 심사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I. 연구의 목적

투표선택 또는 후보자선택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존 한국선거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밝혀진 사실은 지역투표 현상이었다. 특히 최고의 정치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지역투표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지역투표현상은 특히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극명하게 나타났다. 영남출신들은 보수정당의 후보를 호남은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패턴이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주장은 연령 또는 세대의 영향력(이정진 2007; 이남영 2008; 최준영 외), 이념의 영향력(조성대 2008; 김윤실 외 2014), 그리고 경제투표의 영향력(이갑윤, 2008; 경제희 2014; 강우진 2013; 이재철 2008)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발견들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투표현상의 퇴조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한국선거정치의 특징인 한국사회의 균열구조가 지역균열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세대균열과 이념균열로서서히 대체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균열의 약화는 경제투표(합리적투표)라는 새로운 변화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이유에서 지역투표 퇴조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된다면 지역투표현상 퇴조의 증후로 성급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예컨대 지역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연령이나 이념변수가 동시에 후보자선택에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역균열의 퇴조현상’으로 성급하게 결론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급한 결론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영향력과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동시에 강화되는지, 그 중 한 변수가 강화되는지, 아니면 두 변수 모두가 약화되어 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단적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횡단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조사 주체들이 조사 때마다 설문 항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종단적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가 종단적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기획을 하지 않는

학계의 관행이 지속되는 한 엄밀한 의미에서 종단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한 개 내지는 소수의 독립변수들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효과, 연령과 세대효과, 이념효과, 경제투표효과, 인물평가효과, 정당일체감 효과들 중 하나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지역투표의 퇴조 또는 강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이론적으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1)</sup>

셋째, 실제적으로 독립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종속변수인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소홀해 왔다. 즉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를 통해 행사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분석에서 흔히 배제되어 왔다. 지역투표 퇴조 또는 강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간접효과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도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다른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투표현상이 퇴조하고 있는가’라는 경험적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후보자선택이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독립변수들을(지역, 연령, 이념, 경제평가 등) 선정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함에 의해 그동안 선거연구에서 제시되어온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증한 후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역투표의 중심인 영·호남 유권자들에 주목하기 위해 영·호남을 제외한 여타지역 유권자들을

1) 기존 연구들이 동시에 여러 가설들을 검증하지 못 했던 것은 연구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학계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료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선거연구의 주요쟁점들을 포괄하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선거정치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선거정치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런 예측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이다. 지역과 연령, 그리고 성별을 고려한 다단계 층화 표본추출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된 유효 표본은 1200명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출신들은 모두 614명이다.

II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요 가설들을 도출하고 그 가설들을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경로모형에 제시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한다. 마지막 IV 장에서는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은 Amos 경로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 독립변인들의 효과와 경로모형: 기존연구 검토와 가설제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기존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구현실을 보면 그러한 상호작용과정을 검증을 통해 경험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기 보다는 가설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그쳐 왔다.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연구 주제의 선정에 있다. 연구 주제의 선정이 하나의 독립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이다. 연령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인 연구는 당연히 연령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다변인 분석을 통해 진행되는 데 연령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 하지만 그것은 연령변수의 고유 영

향력을 알기 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이는 연령변수와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보자 선택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기존 연구들은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세대효과와 이념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맺는다. 여기에서도 세대가 이념을 경유하여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흔히 배제된다.

마지막 원인은 연구범위를 매우 좁게 기획하는 한국 선거연구의 관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연구범위를 좁히고 대신에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가 연구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산만하게 진행하는 연구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존 가설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점검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능하면 많은 가설들을 경로모형에 도입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후보자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경로모형에 연령, 주관적 이념, 출신지역, 회고적 경제평가 등 4가지 변수가 도입된다. 이 4가지 변수들은 각각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줌은 물론 다른 변수들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해 온 가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경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경로분석을 위한 경로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주요 가설

### 1) 연령 효과(age effect)

최근 한국 선거연구에서 지역주의와 함께 가장 주목 받는 변수가 연령과 세대 변수이다. 연령효과라는 개념은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즉 인간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

기를 거쳐 감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며 그러한 사회적 위치변화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진보적 성향이었던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하는 경향을 가진다(Berelson 외 1954; Binstock 외 2001; 박명호 2009). 최근 한 연구는 한국 이념의 보수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동년배집단의 동질적인 사회화과정을 강조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에 비해 연령효과(life cycle effect)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혔다(이준한 2013). 이러한 전통적인 연령효과를 가설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1: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성향을 가진다.

또한 한국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오래전부터 고착되어온 세대간극 또는 세대균열 현상이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안정과 발전을 희구하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개혁과 평등가치를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노환희 외 2013). 특히 18대 대선은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노인 세대의 결집이 진보적인 문재인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의 결집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 선거였다. 이러한 현상을 가설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2: 나이가 많을수록 박근혜후보를 지지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문재인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 연구가 연령효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선거에서 연령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과거 한국대통령선거 결과는 지역이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 상당한 부분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발견들은 지역효과가 유지되고 있지만 반면에 연령효과는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최준영 외 2005; 온만금 2004; 이남영 2008).

## 2) 지역효과(regional effect)

한국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가장 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윤광일 2013; 강원택 2008; 김만홍 1994). 지역주의란 개인적인 심리상태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타 지역에 대한 차별행동이나 갈등행동을 유발하는 성향을 지칭한다(나간채 1989, 80). 이러한 지역주의가 후보자나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또는 공약 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가 내용 없는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막대기를 공천해도 특정지역에서는 당선된다는 조소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한 지역투표행위가 특히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주의는 특정 정당지지현상으로 치환되어 한국의 정당체계를 지역정당체제로 추락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이념적으로 각각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치구도는 양대 정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유권자의 보수화, 호남유권자의 진보화를 촉진시켰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균열과 이념의 중첩 또는 병렬현상은 한국선거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논거를 가설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3: 영남 출신들은 호남 출신들에 비해 보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변수는 직접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는 대다수의 지역주의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요 가설이기도 하다. 윤광일은 “지역주의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기는 극히 어렵다. 시기적으로 민주화 이전 이든 이후이든, 분석단위가 개인적 수준이든 집합적 수준이든,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양대정당 후보자에 대한 영·호남의 몰표현상을 지적하고 있다(2013, 100). 전통적으로 영남출신들은 보수정당 후보자를, 호남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4: 영남출신들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고 호남출신들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3) 이념효과(ideological effect)

이념이란 한 개인의 의식구조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신념체계이다. 그러한 신념체계는 정치적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편리한 도구이다(Downs 1957). 따라서 이념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과거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에 비해 이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최근 김윤실과 윤종빈은 한국사회의 이념균열구조가 1997년 15대 대선이후로 한국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으며 2002년-2012년 사이의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거에서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후보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2014). 그리고 저자들은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되지만 한국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념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가설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5: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박근혜후보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4)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효과(economic voting)

한국의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발견들이 있다. 그러한 발견들 중 앞서 논의한 연령과 이념변수 이외에 경제변수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연구에서도 경제투표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표출되었고 이미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어 왔다(강우진 2013; 황아란 2000; 이현우 1998). 그들은 투표결정요인으로서 경제변수가 강하게 작용함을 발견하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

역이나 정서적인 귀속감에만 근거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강우진 2013, 229; 이재철 2008; 이현우 1998).

기존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개인적 경제상황 보다는 국가경제 상황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은 개인의 경제사정보다 국가의 경제 상태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지만 기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국가 수준의 경제 환경이 개인적 수준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이재철 2008, 120)”라고 분석했다. 국가경제가 개인적 수준의 경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유사한 분석결과가 여러 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강원택 2008, 54; 경제희 2014, 70).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선거연구자들은 경제투표를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구분하여 분석해 왔다. 한국 선거연구에서는 과거 정권의 국가경제 운영실적에 대한 회고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미래 정권의 국가경제 운영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하다는 발견들이 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이재철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판단과 전망적 판단을 모두 고려했지만 전망적 투표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2008, 131).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투표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18대 대선을 분석한 다른 연구도 회고적 투표 보다는 전망적 투표가 더 주효했다고 주장한다(이내영 외 2013).

이 연구는 위의 경제투표에 대한 두 개의 가설을 분석에 포함 시키고자 했으나 이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의 조사시점이 투표일 이후이기 때문에 전망적 투표는 분석에 도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제투표에 대한 이 연구의 가설은 회고적 투표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념은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즉 이념적 위치에 따라 과거 정권의 경제실적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6: 보수적인 이명박정권의 경제실적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

인 사람들에 비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H7: 과거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의 국가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자인 박근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야당 후보자인 문재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2. 주요변수의 측정과 분석모형

우선 독립변수들의 측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분석을 위한 경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주요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투표선택이다. 18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인 박근혜와 문재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군소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결측 처리하였고 박근혜를 선택한 경우 1, 문재인을 선택한 경우 2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령변수는 2012년 조사당시의 응답자의 나이로 코딩하였다. 자의적으로 세대 구분을 하지 않고 자연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연령에는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와 기간효과(period effect)가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념변수는 주관적 이념으로 매우 진보를 0, 중도를 5, 매우보수를 10으로 코딩하였다. 이념의 영향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의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

---

2)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 연령이라는 변수를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세대라는 변수로 자의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연령과 세대의 구분은 연구자의 개념적 구분에 따른 의미부여에서의 차이일 뿐 측정지표 상으로 보면 양자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실상 동일하다(이내영 외 2013, 45). 따라서 이 연구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와 기간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연령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에는 객관적 이념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각 유권자들 스스로 자신을 이념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주관적 이념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변수는 거주지가 아니라 고향(출신지역)을 묻는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영·호남 지역투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투표의 중심인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만 초점을 두었다. 호남 출신은 1, 영남 출신은 2로 코딩하였다. 여타 다른 지역 출신은 결측 처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평가효과는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항목을 사용하였는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sup>3)</sup>

## 2) 분석을 위한 인과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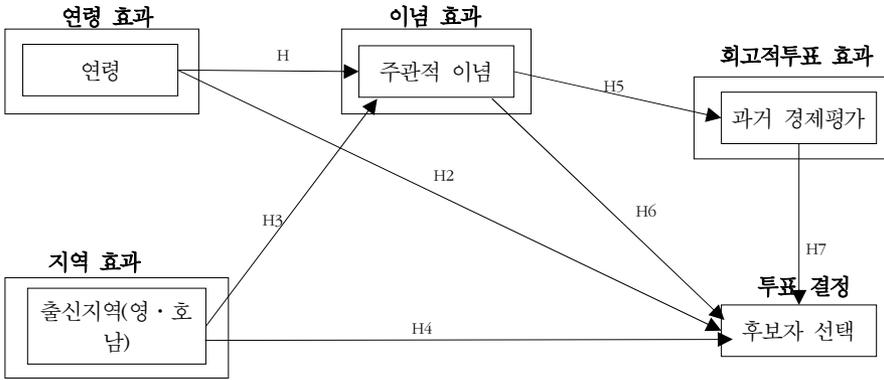
앞에서 논의했듯이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림1은 앞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중심으로 각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경로 모형이다.

제시된 경로모형은 대부분 기존 가설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시하는 경로모형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향후 더 나은 경로모형 구축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의 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아래 경로모형은 투표선택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독립변수들의 효과들을 연령 효과, 이념 효과, 지역 효과, 경제평가 효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에는 위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로 모형은 개념의 조작화 문제, 변수 측정의 문제, 논리적 연결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모형의 제시는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해 온 투표결정 요인들의 영향력들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회고적 평가항목: 선생님께서는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1.매우 좋았다 2.다소 좋았다 3.다소 나빴다 4.매우 나빴다).



〈그림 1〉 영호남 유권자의 투표결정 인과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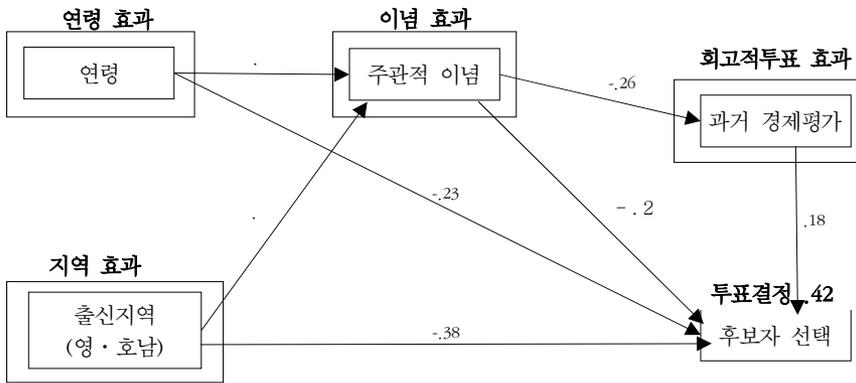
### III. 경로분석 결과

제시된 경로모형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경로분석은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과 그 경로들의 상대적 효과의 크기들을 명확히 보여 주는 분석기법이다. 이 분석기법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은 물론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경유한 간접적 영향력도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로분석결과는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total effect)을 보여준다.

경로분석 결과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자(표2). 절대적합지수인  $\chi^2$ (카이제곱)의 값은 15.03이고 자유도(df)는 3이며 유의수준은 .002이다. 이는 경로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sup>4)</sup> 그러나  $\chi^2$ 의 값은 표본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모형을

4)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인  $\chi^2$ (카이제곱)의 값이 작고 확률 값이 크면( $p > .10$ ) 경로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chi^2$ 의 값이 작으면( $p < .10$ )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배병렬 2009, 247).

올바로 평가하기 어렵다(Bentler 1990).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절대적합지수 대신에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상대적합지수(RFI), 또는 비교적합지수(CFI) 등을 사용한다. 이들 지수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 분석결과 이 모형의 NFI 값은 .980, IFI 값은 .984, RFI 값은 .901, 그리고 CFI 값은 .984로 모두 .90을 상회하는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시한 경로모형은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chi^2 = 15.03(df=3, p=.002)$ , NFI = .980, IFI = .984, RFI = .901, CFI = .984

표1은 각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보여 준다.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로분석에 도입된 4개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후보자 선택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다중상관치를 보면 .42로 도입된 모든 변수들에 의해 종속변수 변량의 약 42%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자료 분석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이라 할 수 있다. 제시한 경로모형에는 정당일체감<sup>5)</sup>, 객관적 이념, 인물평

5)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이전 가지고 있던 정당일체감이

가<sup>6)</sup>, 전망적 경제평가와 같은 이론적으로 매우 유효한 변수들이 제외되어 있다. 만일 추후에 그러한 독립변수들을 분석에 도입한다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표 1) 각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도

다중상관치(SMC)=.42; \*\*\* p < .001

경로	가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β)
주관적 이념 ← 연령	H1	.051	.341***
후보자 선택 ← 연령	H2	-.008	-.231***
주관적 이념 ← 출신지역	H3	.897	.189***
후보자 선택 ← 출신지역	H4	-.389	-.377***
후보자 선택 ← 주관적 이념	H5	-.058	-.265***
과거경제 평가 ← 주관적 이념	H6	-.078	-.255***
후보자 선택 ← 경제평가	H7	.131	.183***

이 연구가 제시한 7개의 가설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보면 가장 영향력인 큰 경로가 출신지역이 후보자 선택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377로 영남출신들이 호남출신들에 비해 문제인 후보 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제시한 가설(H4)의 방향과 일치한다.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를 모형에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중빈은 인물중심의 한국정치가 정당의 존립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인지도나 정당과의 일체감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1993, 50). 그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정당일체감을 독립변수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연구모형의 논리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 인물평가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후보자들의 인물됨됨이 즉 이미지, 도덕성, 지도력, 지식, 정직성 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송근원 2013; Jacoby 2006; 조성대 2009; 송건섭 외 2008). 그러나 이 연구가 사용하는 자료에는 후보자 인물됨됨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연령에서 주관적 이념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표준화 경로계수가 .341이다. 예상한 대로 관계의 방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이념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가설(H1)과 일치한다.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주관적 이념에서 후보자 선택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265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이념이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H6)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네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주관적 이념에서 과거 경제 평가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255이다. 주관적 이념이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이명박 정부시절의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 연구가 제시한 가설(H5)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말 해 준다.

다섯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연령에서 후보자 선택으로 연결되는 경로이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231로 나이가 많을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설(H2)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경로는 출신지역에서 주관적 이념에 이르는 경로인데 표준화 경로계수는 .189이다. 이 결과는 출신지역이 호남인 사람들의 주관적 이념은 출신지역이 영남인 사람들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가설(H3)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출신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이념적 학습을 받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적은 경로는 과거경제 평가에서 후보자 선택에 이르는 경로이다.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183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의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H7)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다.

위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모형에 도입된 4개 독립변수들의 종합적 설명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일에 이 연구의 경로모형에 누락된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도입된다면 설명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효한 독립변수들의 추가는 향후 선거연구의 새로운 과제이다.

또한 경로분석 결과는 연구모형 제시하고 있는 7개의 가설 모두를 지지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는 출신지역에서 후보자 선택에 이르는 직접 경로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영·호남지역주의가 퇴조하고 있다는 가설적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연령이나 주관적 이념의 직·

간접영향력도 상당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투표인 회고적 경제투표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과거 경제평가 변수는 주관적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후보자 선택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영·호남 유권자들은 지역투표라는 현상의 중심에 있지만 후보자 선택에 있어 다른 변수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 변수들이 갖는 직·간접 효과와 전체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 표2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 준다. 영향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되며 두 효과의 합이 전체효과가 된다.

〈표 2〉 각 독립변수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

	표준화된 직접효과	표준화된 간접효과	표준화된 전체효과
출신지역	-.377	-.059	-.435
연령	-.231	-.106	-.338
주관적 이념	-.265	-.047	-.312
과거경제 평가	-.183	.000	-.183

예상한대로 출신지역의 표준화된 전체효과는 -.435(직접효과 -.377 + 간접효과 -.059)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효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출신지역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연구들의 지역투표 현상의 퇴조에 대한 가설적 주장들은 이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투표 현상의 지속에는 영·호남 지역 출신들은 각자 다른 사회화 학습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 ‘영남출신들은 보수화되어가고 있으며 호남출신들은 진보화 되어가고 있다’는 가설적 언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출신지역이 주관적 이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은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출신지역이 주관적 이념을 거쳐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효과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연령변수이다. 이 변수의 전체효과는  $-.338(\text{직접효과 } -.231 + \text{간접효과 } -.106)$ 이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령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전쟁과 가난을 겪은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게 반영된 것 같다. 그와 반대로 전쟁이나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탈물질적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과 인권 및 자유의 확대, 참여의 확대, 재벌 및 노동개혁, 환경개선 등을 주장하는 문재인후보 지지성향을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어수영, 1999).

둘째, 연령이 이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보수 후보인 박근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일수록 진보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진보후보인 문재인을 선택하였다’는 가설적 언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주관적 이념을 거쳐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상당하다. 영·호남을 불문하고 연령이 젊을수록 진보화 되어 가는 지역 내 세대균열 현상은 지역투표 퇴조의 한 강력한 증후라고 생각 된다.

셋째, 영·호남 출신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차별된 투표행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령효과가 점차 강화되어 간다면 지역투표 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역시 종단적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적 이념변수의 효과도 상당하다. 전체효과는  $-.312(\text{직접효과 } -.265 + \text{간접효과 } -.047)$ 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변수의 직접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주관적 이념이 과거 국가경제평가 변수를 경유하여 행사하는 간접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이 결과는 한국선거정치연구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유권자의 회고적 경제평가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지 이념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경제평가 변수는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  $-.183$ 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갑윤이 17대 대통령선거 분석결과 “지역주의적 투표와 세대 및 이념투표의 존재가 한국선거에서의 투표결정 요인의 지속성을 보이는

반면, 경제투표 및 정부업적 평가라는 합리적 투표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를 나타낸다(2008, 80)”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한국의 유권자가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단순한 투표를 벗어나 경제정책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투표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해 준다.

#### IV. 결론

이 연구는 ‘지역투표 현상은 퇴조하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에 근거한 횡단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위의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직·간접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 주관적 이념, 지역, 그리고 회고적 국가경제 평가라는 4개의 변수를 가지고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4개의 독립변수들은 상호 관련을 맺으며 후보자 선택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분석결과 이 연구가 제기한 7개의 주요 가설들이 모두 채택되었다.

주요 발견들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출신지역효과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 결과에 의해 지역투표현상이 약화되는지 또는 강화되어 가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강력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령의 효과, 주관적 이념의 효과, 회고적 국가경제평가 효과도 발견된다. 16대 대통령선거 이전의 선거에서는 지역이외의 변수들의 효과가 미미했었으나 16대·17대·18대 대선을 거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서서히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갑윤 2008, 80; 노환희 외 2013). 그들 변수의

영향력들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지역투표의 약화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한국 선거균열의 구조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균열 변수 하나로 유권자의 후보선택행위를 설명했다면 이제 다양한 균열구조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역균열구조의 설명력은 약화되어 간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 있다.

경로분석 결과 각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를 경유하여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강력한 간접 경로가 연령이 이념을 경유하는 경로이다. 즉 출신지역을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진보로 구분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보수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균열 내부에 강력한 세대균열요소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이러한 세대균열이 강화되어 간다면 지역주의는 약화되어 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역이 주관적 이념 변수를 경유하는 경로도 흥미롭다.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온 지역과 이념의 상호 중첩효과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호남출신인 경우 스스로를 진보라고 구분하고, 영남출신인 경우 스스로를 보수라고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과 이념의 중첩효과가 향후 강화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역균열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만일 그러한 중첩효과가 사라진다면 지역투표 현상은 약화될 것이고 중첩효과가 강화되어 간다면 지역투표 현상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고적 경제투표 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성장, 가계소득 등 비교적 복잡한 계산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한국의 유권자들이 비교적 단순한 지역감정과 같은 정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합리적 유권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영·호남 지역투표 현상은 퇴조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 했다. 그러나 지역투표 현상이 퇴조되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향후 엄밀하게 기획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우진. 2013.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5): 213-233.
- 강원택.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25:31-59.
- 경제회. 2014.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한일 비교 연구: 17대, 18대 대통령선거와 44회, 45회 중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6(1): 53-85.
- 김만흠. 1994. "지방자치 논리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지방정치." 『동향과 전망』 24.
- 김윤실 · 윤종빈. 2014. "한국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16대 · 17대 ·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6(2): 119-141.
- 나간채. 1989.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 갈등』. 서울: 성지사.
- 노환희 · 송정민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박명호.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9.
- 송근원. 2013. "정책투표인가, 인물투표인가?: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6(2): 37-67.
- 어수영. 1999.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3(3): 111-131.
- 온만금. 2004.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과 세대." 『사회연구』 5(2): 79-96.
- 윤광일. 2013. "지역주의와 제18대 대선." 『분쟁해결연구』 11(1): 99-131.
- 이갑윤.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과 집합적 투표결정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18(3): 67-84.
- 이남영. 2008. "지역주의와 세대갈등." 『평화학연구』 9(3): 282-305.
- 이내영 · 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19(3): 37-83.
- 이내영 · 안종기.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12(2): 5-36.
- 이우진 · 김태은. 2004.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

- 표." 『경제논집』 52(2): 51-72.
- 이정진. 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3(1): 51-92.
- 이준환. 2013.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 2007년과 2012 대통령선거." 『정치·정보연구』 16(2): 1-26.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1): 111-136.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49-65. 서울: 푸른길. 97-150.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1(1): 169-198.
- 조중빈. 1993.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49-65. 서울: 도서출판 나남.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93-212.
- 황아란. 2008. "영남 지역주의의 지속성과 변화: 긍정적, 부정적 정당태도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8(1): 69-9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nstock, Robert H. and Jill Quadagno. 2001. "aging and Politic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Vol. 5.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Low.
- Jacoby, William. 2006. "Ideology in the 2004 Election." Presented at The Wartime Election of 2004, a conference hosted by Ohio State University, January 12-15, 2006.

【ABSTRACT】

## Is Regional Voting in Korea Declin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18<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Lee, Nam Young | Sejong University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Is regional voting in Korea declining?”. To answer the question, the study presented a path model in terms of various hypotheses developed by previous researches. The path analysis results showed several indirect but significant evidence on the declining of regional voting in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regional conflict between Youngnam and Honam seemed to be weakening, but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seemed to be strengthened. And we also found the relatively strong effect of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However it is dangerous to make a hasty conclusion on the declining of regional voting on the basis of cross-sectional data. Longitudinal researches are needed in order to reveal the changing pattern of regional voting more clearly.

---

**Key Words** | Vote Choice, Presidential Election, Party Support, Ideology, Regionalism, Economic Voting.